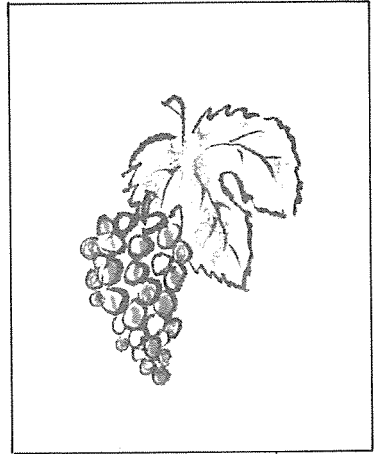


## 種痘法의 첫시행자

### 池錫永 선생

■ 이 재 흥



#### 이땅에 현대의학의 씨를 뿌린의사

“지석영”은 철종(哲宗) 六년(1855) 5월 15일 서울에서 빈약한 한방약국집 막내로 태어나 풍운의 거센 이조말기 고년의 만 활력을 겪으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일합방 후에는 20년동안 운둔생활로 여생을 보내다가 1935년 2월1일 81세를 일기로 별세한 의인(醫人)이었다. 지석영에 의해 <제너>의 우두종법이 널리 퍼지기 전까지 우리 나라에는 “인두종법”이라고 하는 매우 원시적이며 위험한 두창 면역방법이 있었다. “인두종법”이란 無菌(무균)상태에 이른 천연두 환자의

마마딱지를 정상인의 콧구멍에다 부착시켜서 면역을 갖게하는 방법으로 송나라의 진종때(1000년경)부터 시도된 흔적이 있으나 이의 시작이나 효과에 대하여는 알 수 없고 다만 명나라 말기 1600년대부터 널리 시행되었다는 기록을 “張英”의 「종두신서」나 「의종전감」 가운데 「종두심법」에서 찾아볼수 있다. 이 원시적 면역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이규경(李圭景)의 「오주 영문장전 산고중예 종두변종설」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그 연대가 정조 14년으로 보여진다. 이 방법은 ‘칭’ 나라에서 우리나라

라를 거쳐 일본에까지 전해져 약백년 동안이나 널리 쓰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수묘법(水苗法)을 썼기에 얼마 전까지도 콧구멍에 종두 자리가 있는 고령자들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인두종법을 처음들어오게한 사람은 박초정(朴楚亭)으로 전해오고 있다. 박초정은 영평(永平)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이방이 얻어온 마지막 딱지를 자기 아들에게 시종(試種)하였고 그것을 관노의 아들에게 그리고, 다시 자기 조카딸에게 써보았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인두종법”은 비로소 전하여 졌던 것이다. 그로부터 박초정은 이종인에게 종두법을 가르쳐 북촌의 양가에 보급하기로 하였으나 그해(1800)에 정조가 승인하고 이듬해 순조가 즉위하면서 서학(西學)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박초정은 경원에 유배 되었고 이종인도 옥고로 사경에 이르러 잠시 돌았던 종두의 싹이 완전히 짓밟히듯 했으나 다시 일어난 이종인이 영남에서 끈기있게 보급시켜 백종백치(百種百治)하기 십수년 동안 상당한 접종자를 내었다. 마침내 순조 17년에는 「시종통변」(時는 천연두種은 종두를 말함인데 이 두가지의 치료법을 안함) 1권을 편찬했으며 그에 따라 인두종법은 지식영에 의하여 우두종법이 도입되기 까지 전국에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이다.

영국의 「제너」가 우두접종에 성공한 후 일본을 거쳐 지식영의 손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까지 80여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 전혀 모르고 지냈을 리는 없다. 청나라

에 우두종법이 들어온것은 1828년 그 후 ‘정승겸’의 종두기법 “구찬”의 인두략등 전문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약용”에게 발견된 것이 헌종 원년이었다. 정약용은 이들 서적을 근거로 남몰래 어린 아이의 어깨에 바늘자리를 낸다음 암소에서 채취한 우두딱지를 넣어 실효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유배중이었고 천주교 박해가 심한 때여서 세상에 알릴 수가 없었다. 1976년 2월 한일수호조규(韓日修好條規)가 조인되자 정부는 그 답례로 “김기수”를 수신사로 하는 사절단 일행 75명을 일본에 보냈는데 이 수행원중에 지식영의 스승 ‘박영선’도 끼어 있었다.

의무담당 서기로 동행한 ‘박영선’은 “도오쿄오”에 머무는 동안 “순천당”의 “오오다키”의사를 알게되었고 그에게서 기초 지식을 얻는 한편 「종두귀감」1권을 가지고 귀국했다. 이것이 “제너”의 우두종법이 우리나라에 건너온 첫 가교였는데 이는 “제너”가 영국에서 집종에 성공한지 꼭 80년만의 일이라 당시 22세였던 지식영이 스승이 가져온 「종두귀감」을 남달리 탐독했다는 사실은 그가 일찍부터 무참히 죽어가는 수 많은 천연두 환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양의학에 전혀 기초지식이 없었고 면역학리가 워낙 어려운데다 연구 실험해볼 두균을 얻을 길이 없었다. 그럴 즈음 부산에 와있던 일본인들 사이에는 우두가 시행되고 있었다.

한반도의 침략기지로 강제 개항되었던 부산에는 서울보다 많은 일본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미 우리나라 최초

의 양의원인 “재생의원”도 개설되어 있었다.

1879년 가을 그가 부산으로 내려간 것은 그해 자기 조카가 천연두로 사망한 충격에서였다. 개항 도시에 가면 보다 자세한 신의(新醫)의 교시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떠났던 것이다. 짚신감발로 천리길을 떠난 그의 심중에는 두 종재민의 굳은 뜻이 서려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문전구걸로 부산포구내의 의원과 일본인을 찾아다니며 우두법을 아는 자를 찾았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는 데다 행색이 남루한지라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우연히 우리말을 잘 하는 “우라세”라는 일본인을 만났다. “우라세”는 종두법을 배우러 천리길을 왔다는 신기한 청년을 재생의원장 “마쓰마에”와 일본 해군 “도츠키”군(軍醫)에게 소개하여 종두법을 배우도록 추천하여 주었다. 부산에 2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는 양의학의 기초 지식과 우두법 전반에 관해서 배웠다.

그동안 일본인 거류지에 무단히 출입했다는 이유로 동래부 경찰에게 붙잡혀 고생한 일도있다. 그는 여기서 두묘 세 그릇과 종두침 2개와 접종기구 그리고 수권의 의서를 가지고 부산을 떠났다.

그런데 여기서 얻은 두묘는 채취한지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상경도중 충주군 덕산면 처가에 들려 두살난 처남에게 접종하려고 하였다. 이때 처가에서는 건강한 아이에게 쇠고름을 넣는다고 맹렬히 반대하였다. 그러자 지식영은 일어서며 절연을 선언하고 자기가 수천리의 여고(旅苦)를 무릎쓰고 배운 의술을

믿지 못한다면 귀한 처남에게 접종시킬 생각을 했겠느냐고 화를 냈다.

당황한 처가에서는 울상으로 막내동이 아들에게 접종시켰다. 이것이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우두를 시행한 첫케이스라 지식영은 두묘가 채취한지 오래된 것이어서 걱정했으나 나흘만에 무사히 발진을 보았다. 이 성공으로 그는 마을 주민 42명에게도 접종할 수 있었다.

1880년 지식영이 서울로 돌아왔을 때는 마침 고종의 첫아들 “완화궁(完和宮)이 두창(痘瘡)으로 사망하고 둘째 아들 “탁(拓)은 겨우 두후(痘候)가 완쾌할 무렵이다. 지식영은 부산에서 조금씩 보내오는 두묘로 양반 대가의 자녀들 부터 먼저 접종시켰다. 마침내 장안은 우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계몽 되었으나 두묘의 부족으로 시술을 계속할 도리가 없었다. 두묘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열망은 지식영에게 뿐만 아니라 권문세가의 열망이기도 했다.

지식영이 수신사 김홍집과 함께 도일하게 된것은 두묘 제조법을 습득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반상전랑청(伴尙前郎淸)이란 직함으로 일행 58명과 함께 그해 8월 2일 일본으로 갔다.

그는 도오료에 머무르는 28일동안 세 번에 걸쳐 일본 내무성 위생국 우두종계소에서 교습을 받았다. 이때 두묘 50그릇과 두묘 채취에 관한 의서로서 “소아종두법” “진창가창” “소아두창 채취법” “두묘제조”등의 서적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임오군란때 지식영은 친일 매국한다는 비난을 받아 난민들에게 쫓기어 피신 하

게 되었다. 그 까닭은 다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한·일수호조약의 결과로 2년 전 서울 서대문 밖에 일본 공사관이 설치되었는데 지석영은 의원 “김용현” “남사우” 등과 함께 이 공관의 의관으로 부터 서양의학을 교습받기 위해 이웃의 초가에 가서 살았는데 이것이 인조 주민들에게는 「친일매국」으로 보였던 것이다.

둘째는 우리 구습에 두역은 두신(痘神)의 작위라 하여 발진 12일만이면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 그런데 우두접종이 성행하자 무신의 지배하에 있던 두역이 감소되고 따라서 무당들의 생계 바탕이 축소되었다. 그들은 갖은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종두를 방해했으며 종두의 도입자인 지석영을 마술쟁이라 부르기도 하고 시색에 따라서는 “매국”과도 결부시켰던 것이다.

이와같은 모함은 난민의 주장처럼 뿐만 아니라 “민비(閔妃)에 의해 개발된 신문명(新文明)이라 하여 대원군은 그에게 포박령을 내렸다.

그러나 청나라의 대원군 납치와 민비의 재 등장으로 지석영은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으며 이때 깨달은 점이 있었다. 그것은 인술만을 가지고 제민할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한쪽 손에 두(痘) 침을 다른 손에는 정치적 참견(參見)을 잡을 결심을 했다. 고종 24년 여름 지석영은 사헌부의 장령에 부임되었는데 세상이 날로 어지러워짐을 보고 일일 개조의 시폐를 들어 탄핵했다. 열거된 인물중에는 당대를 휩쓸던 권세가도 있어 이 탄핵문은 본인들의 눈에 뜨이기도 전에

“서행보” “채상하” 등의 이른바 과잉충성으로 행형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지석영을 감신정변 당시의 김옥균의 잔당이라고 모함하면서 전라도 “당진” “신지도”에 유배형을 내렸다.

1882년 9월에는 전라도 어사 “박영교”의 초빙으로 전주에 우두국을 설치하여 호남지방 농민들에게 접종시켰고 이듬해 여름에는 충청도 어사 “이용호”의 초빙으로 공주군에 우두국을 설치 하였으며 그 2년후인 1885년 에는 “우두신설”(牛痘新說)이란 책을 간행하는 한편 우두교수관에 임명되어 충청도내를 순회하였던 것이다. 6년만에 돌아온 그는 쉴 겨를도 없이 서울 교동에 우두보영당을 개설하여 불취분문전행 포시(不取分文專行布施)란 간판을 걸고 2년 동안 계속해서 어린이 들에게 자선 종두를 실시했다. 그는 한성의학교의 초대 교장으로(1899) 추대되었으나 개교 8년만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일본인들이 밀려들어 오면서 한성의학교는 대한의원의 의욕부로 또는 부속 의학교로 편입되는 한편 지석영도 교장에서 학감, 학생감등으로 돌려졌다. 아직 40대의 장년이었으나 겨레 모두가 나라 잃은 설움에 젖어 있을 때이고 보면 일본인들의 손아귀에서 인술제민이란 쑥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관(官)과 관련된 교직을 버리고 국문개량에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억눌린 애족의 뜻을 달래기도 하였다.

그는 성문사(誠文社) 인쇄소를 창설하여 신문화 운동에 앞장섰던 ‘이 용익’ 등과 함께 문화 보급의 선구자가 되었다.

이와같이 지석영은 우두법의 선각자라

## 술 과 나

### 24가지질문중 7~9개되면 일단 의심

알콜중독은 남의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다음 24가지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 보고 해당되는 문항이 7~9개가 되면 일단 알콜중독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10개가 넘으면 당신은 틀림없는 중독자이다. 당장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① 때때로 알콜성 음료를 마시는가 ?
- ② 술마신 다음날 아침 깨어나서 지남방향을 기억하지 못한적이있는가 ?
- ③ 주위사람들이 당신의 술버릇에 대해 걱정하는 소리를 들은적이있는가 ?
- ④ 술을 마시지 않으려 금주모임에 나간 일이 있는가 ?
- ⑤ 술마시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가 ?
- ⑥ 술을 마신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싸운적이 있는가 ?
- ⑦ 술때문에 가족과 문제를 일으킨적이있는가 ?
- ⑧ 당신이 술마시는것 때문에 가족이 당신주위사람에게 도움을 구한적이 있는가 ?
- ⑨ 술때문에 술마시지않는 친구를 잃은적이 있는가 ?

- ⑩ 술때문에 직업상 사고를 낸적이 있는가 ?
- ⑪ 술때문에 실직한 일이 있는가 ?
- ⑫ 술때문에 자기가 해야할일에 이틀 이상 등한 한적이 있는가 ?
- ⑬ 아침부터 술을 마신적이 있는가 ?
- ⑭ 술을 삼가야겠다고 생각한적이 있는가 ?
- ⑮ 성인이 된후 술을 완전히 끊어야겠다고 생각한적이 있는가 ?
- ⑯ 간장에 이상이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가 ?
- ⑰ 술때문에 심한 경련이나 헛소리를 한적이있는가 ?
- ⑱ 깊이 취한 상태로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들은적이 있는가 ?
- ⑲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의 부축이나 도움을 받은적이 있는가 ?
- ⑳ 술때문에 입원을 한적이 있는가 ?
- ㉑ 의사로부터 술을 끊으라는 권고를 들은적이 있는가 ?
- ㉒ 술로 인한 정신적장애로 입원한적이 있는가 ?
- ㉓ 술로 인한 정신적문제로 의사나 종교인의 조언을 구한 적이있는가 ?
- ㉔ 음주운전이나 음주후의 행동으로 경찰에 연행된 일이 있는가 ?

고만 할 수 없는 다양한 이력을 전개하였던 것을 알 수 있거니와 혼탁한 시대를 거슬러 오며 그가 겪어야 했던 과정을 볼때 새삼 선각자의 의로운 길을 이해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한국의 학사, 두창의 유행과 종두법실시 : 김두중, 근대의 인물 : 김성진

(필자 = 연세의대 기생충학교실)